

미디어는 佛音의 나투심이다

미디어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 선언 · 불교문화연구원 추계 국제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우제선 교수(동국대) 이항순 교수(미국 조지아대) 마크 아메리카 교수(미국 콜로라도대) 순.

국내의 미디어학자와 불교학자들이 '미디어를 통한 대중화의 접근은 부처님의 대기설법과 같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10월 26~27일 대한불교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의 대중화와 뉴미디어'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는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예술문화 속의 불교 정신을 찾아 불교미디어 확산의 계기로 삼고자 기획된 이번 대회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혜원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매체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욕구에 다가서지 못한다면, 불교는 살아남을 수 없는 학문적 불교에 그치거나, 대중의 불교로 곧 화석화되고 말 것"이라며 불교 대중화의 대안으로 뉴미디어를 택하게 된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자 10명의 발표가 양일간 이어졌다. 2001년 타임지 선정 '100인의 혁신가'에 포함된 초창기 예술가이자 뉴

미디어 이론가인 미국 콜로라도대학 마크 아메리카 교수는 '예술가, 매체 그리고 도구'를 통해 '예술가는 각자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창조적 길을 파야 한다. 그 길은 좁지만 다양하지만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함으로써 예술의 길과 구도의 길이 다르지 않으며 각기 다른 방법이 중국에는 하나의 목적으로 회향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수호 교수(성균관대)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그 대중적 활용'을 통해 사이버세계와 화염세계의 유사성을 밝혔다. 박 교수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가 불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이버공간에 불교적 이상사회(불국정토)를 건설하려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동환 교수(한신대)와 정재형 교수(동국대)는 각각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전략적 연구'와 '불교콘텐츠의 영화산업에서의 활용방안'에서 "불교문화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다"며 인력육성의 중요성

을 주장했다. 이항순 교수(미국 조지아대)는 '동승, 향수 그리고 한국불교영화'란 주제를 통해 불교영화 모티브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소재의 특이성이 아닌 불교철학의 보편적인 문제를 소재로 하지는 과제를 남겼다. 마츠이류우 교수(일본 오쿠에)는 '전후 일본문화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일본 문화 속에 내재된 불교를 조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또 다른 성과로 꼽히는 것은 백남준, 윤이상이라는 예술계 거장을 불교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용우 교수(고려대)와 윤양호 교수(원광대)가 <금강경>과 '공' 사상을 통해 백남준의 비디오예술세계 속의 불교를 조명했고, 홍은미 교수(서울대)와 불교장수파라 회장(독일, 국제음악상협회)은 '무상'과 '원융사상'을 빌어 윤이상 음악세계의 불교적 해석을 시도했다.

한편 학술대회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임이조 이사장(한국 전통음악연구원)의 승무와 한광무, 교방실필이 등 문화공연이 열려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동섭 기자

부산 복천사,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 재조명

부산 복천사가 항일독립운동가 양정욱의 은신처이자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5일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열린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2007년 추계학술세미나에서 경성대 강대민 교수는 양정욱의 항일운동과 그의 활동처였던 복천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강 교수는 "독립운동가 양정욱은 학생신분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반일활동으로 인해 체포되어 22세의 젊은 나이에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한 인물이다"며 "전승에 따르면 그의 활동지였던 복천사 뒷산에는 독립투사들이 은신처로 사용한 암굴이 여러 개 있었고 복천암 스님들이 대가사로 내려와 태극기 그리는

법을 몰래 가르쳐 주며 독립 운동을 이끌던 주요 활동지"라고 설명했다.

양정욱은 부산제2상업학교 재학 시기인 1928년, 학생 신분으로 동지들을 규합하고 독서회 활동과 민족해방에 기반을 둔 애국활동을 벌인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대는 일제의 노선이 강경진압에서 문화통치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그는 민족문제에 큰 책임의식을 지니고 독서회라는 조직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에 앞장 섰다.

월간지를 발행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한 후조회를 이끌던 양정욱은 1929년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자택한 고문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하여 병보석으

로 가출옥하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곧 병사했다. 그는 고문으로 손톱이 모두 다 빠졌다고 한다. 정부는 1995년 양정욱의 업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복천사 주지 경호 스님은 "복천사는 일제시기 제국주의 압제에 맞서 독립군을 양성하여 항거한 민족 종교도량이었으며 조선 불화의 전통성을 고수하면서 근·현대의 불교회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불모(佛母) 안호 스님의 향기가 배어 있는 영남의 불화소이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복천사의 유래와 문화를 계승하고 양정욱 선생의 일대기가 재조명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지계가 불교의 희망이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제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참회합니다." 참회와 자정의 목소리가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태지리 회양산을 울리고 사방세계로 퍼진 다음날인 10월 20일.

봉암사찰 통도사 설립전에서는 '불교 계단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출가수행의 규범을 되짚어 부처님 당시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의 불교학자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한 자리였다.

"불교가 수천 년을 면면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계단(戒壇)을 유지했기 때문이다"라며 기초발제를 한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과 "한국 불교에서의 계단의 구조와 의미"를 발표한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인도불교의 교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백두수 강사(금강대),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분절과 통합의 변증"을 발표한 박희택 교수(위덕대)는 "계단의 모습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계율의 정신은 부처님 당시나 현재나 똑 같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20일 통도사 설립전에서 열린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장과 금강계단"을 발표한 김경집 강사(동국대)는 통도사 금강계단의 조성 배경이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에 시달리던 신라가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규합하고자 세웠다"는 견해를 밝혀 계율의 강화를 통해 대중의 회합을 도모해야 함을 피력했다.

'선원청규: 중국불교적제도운리'를 발표한 황규 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은 선종의 청규와 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대를 지나며 제도개혁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개혁은 항상 계승을 전제로 했다"며 "선원청규가 계율의 중국문화적 수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나 부처님 당시의 출가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청규의 계율수용과 변화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신공 스님(동국대 박사)은 계율과 청규의 상의상반된 성격에 대해 지적하면서 현대적 선원청규 제정을 통한 종풍 기강 확립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근현대 한국불교의 네가지 유형'의 모델: 제국주의, 한국불교, 그리고 평화불교'를 발표한 성원 스님(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은 대중화를 평화조성으로 개념의 폭을 넓혀 불교가 종교를 초월해 범세계적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새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학술단신

■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는 11월 2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제9회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를 연다.

한국불교전서 전14책의 전산화 회화 고분식을 대신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전서 전산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구소장 보광 스

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전산시스템 전문가 홍영식·이금석·이유규 교수(동국대 컴퓨터공학)가 전자불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불교학자로는 임종욱 연구원(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과 류승주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참여한다.

■ 명상심리치료학회(회장 인경)는 11월 3일 동국대 만해관 모의법정에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호흡법과 영지관(念·止·觀) 명상치료'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1부 학술발표와 2부 사례발표로 나뉘어 열린다.

1부에는 원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이 '집아람과 상응부에 나타난 입출식법'을,

이필원(동국대 강사)씨가 '청정도론에 나타난 호흡법'을, 김성철(전남대 강사)씨가 '유가사지론 성문지에 나타난 수식법' 등을 발표한다.

2부에는 오윤경·이영순(동방대학원대학 박사과정)씨가 각각 호흡과 영지관명상에 대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사례 연구를 내용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법당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쌀쌀한 늦은 가을을 맞이하여 조계종 포교원장 해충 크스님을 모시고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법당 개원법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앞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 많은 환우님들의 병환을 치유하고 심신의 고통을 소멸해줄 커다란 도량이 될 것입니다. 원만하게 불사를 마칠 수 있게 동참 후원해주신 원내외 불자님들께 직접 찾아 뵙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나, 외람되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법당 개원식에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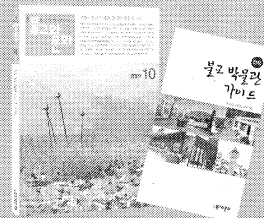
- 일시** 2007년 11월 16일(금) 오후 7시
- 장소**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8층 대강당
- 문의전화** 지도법사 : 지 현 011-305-6699
총무 : 황경임 010-4509-7747

고려대학교의료원 불자회 지도법사 지현, 회장 대휴 합장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 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

10
2007



특집 | 불교 박물관, 문화의 중심에 서다

지역 문화를 살찌우는 문화 포교의 첨병, 불교 박물관을 문화적으로 조명한다.

별책 부록 | 전국 불교 박물관 가이드

전국 곳곳의 성보 박물관과 테마 전문 박물관 등 박물관 40여 곳에 대한 소장 유물 목록 및 관람 요강, 약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리뷰어 | 사명, 그 고평도 어려운 이야기
사명이란 이름의 실천 수행 2(자기를 잊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마음이 보인다)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팔삼론 9(녹원전법상)
종법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론) | 법화경, 생활불교 가이드 | 보름 포살 법회란 무엇인가?
연법전에 피어는 연꽃 | 부산 금련사
문태준 시인의 치유포토에세이 | 이별에게
술길 10 | 화성 용릉, 건릉의 숲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 윤길삼 수종사
집중인터뷰 | 방해자 화백
드라마작가 정형수가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절집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 공주 홍복사 도토리 아예 수재비
황기로운 사람들 | 학습지도 지원봉사 불자·부처님에 사진 공양 올리는 불자
도교통신 | 일본의 '외버사비'
법현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여덟 가지 특별한 것을 갖춘 아난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불교와 박물관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년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팀) www.buddhistculture.co.kr